

2015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출제의도,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인문계열 - 오전)



광운대학교 입학처

2015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오전)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볼펜”으로 정확히 기재 및 마킹(진하게)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땅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고,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설명한 다음, 제시문 (나)의 밑줄 친 ‘백인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제시문 (라)의 밑줄 친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의사인 아들 창섭은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듯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신이 진작에 시골의 부모님을 도시로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고 낙향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라고, 병원에는 나날이 환자가 늘어만 가는데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봤자 1년에 고작 3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까 말까지만 땅을 팔아서 생기는 돈으로 병원을 확장한다면 1년에 적어도 만 원씩은 이익을 뽑아 낼 자신이 있다고.

끝까지 아들의 의견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천금 아니 만금이 쏟아진다고 해도 나는 땅은 못 팔겠다. 우리 눈독에 선 느티나무는 네 증조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고,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는 네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다. 나는 그 나무들을 쳐다볼 때마다 마치 그 어른들 동상(銅像)을 바라보듯 가슴 속에 경건한 마음이 솟아오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금전적인 수치타산을 따져 사고팔고 한다는 말이나?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다. 돈 좀 있다고 땅 욕심에 아무 땅이나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득만 생긴다고 하면 돈놀이하듯 그 땅과의 인연이란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땅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창섭은 그만 입이 얼어버렸다. 땅에 대해서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하였다.

(나)

다음은 서부 개척기에 어느 인디언 추장이 미국의 프랭클린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당신이 우리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전갈을 받았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당신네 **백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묻고 싶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해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는 모두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백인들은 어머니인 대지와 형제인 하늘을 마치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약탈하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백인들의 식욕은 땅을 삼켜버리고 오직 사막만을 남겨 놓을 것이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 가고 있는 수많은 물소를 본 일이 있는데, 모두 달리는 기차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들이었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영혼이 외로워져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들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쳐라. 땅은 우리 어머니라고. 땅 위에 닦친 일은 그 땅의 아들에게도 닦칠 것이니, 그들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다음 장 계속>

(다)

최근 브래들리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이 각각 일생 동안 가 본 적이 있는 지역의 범위를 조사하여 지도에 나타내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40km 범위 안에서 일생을 살았으며, 할아버지의 활동 반경 역시 약 400km 정도의 범위인 남부 잉글랜드로 제한된 반면, 브래들리의 아버지는 영국을 벗어나 유럽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였으며, 브래들리 자신은 이미 여러 차례 전 세계 각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활동 영역이 4세대에 걸쳐 지역, 국가, 대륙, 세계 범위로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브래들리의 삶과 그의 증조할아버지의 삶은 단순히 이동의 물리적 거리나 생활의 지리적 범위의 측면에서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후자가 특정 지방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고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 순종하는 농경민이자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전자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학습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변동에 따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변화무쌍한 도시민이자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과거 인간의 삶을 제약하고 있던 공간적 속박은 사라졌다. 그 결과, 전통 시대 사람들에 비해 현대인들의 공간 감각은 몰라볼 정도로 변했다. 따라서 브래들리와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갖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생각, 거주지나 출신지에 대한 애착,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애정의 정도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라)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며, 자연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이 오늘날 환경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을 인정하는 윤리학적 견해이다.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세우고 인간을 제외한 자연을 오로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이로운 물질생활의 풍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은 원하는 대로 자연을 다룰 수 있다’는 자연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 위기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인류 문명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유방식으로 **생태 중심주의**가 고려되고 있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신성하며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함으로써, 생명을 유지·보전하고 이를 중시하는 것을 선(善)으로 보고, 그와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이를 경시하는 것을 악(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자연을 도구화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정당하며 불가피하다고 보는 인간 중심주의의 도덕적 불감증을 강력히 비판하며,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산업화 시대의 환경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녹색 성장’과 같은 논의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간의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 계속>

[문제 2] 제시문 (가)의 밑줄 친 ‘검사’와 ‘아이히만’의 입장과 각각의 정당성을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제시문 (라)의 밑줄 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개념과 논지에 근거하여 ‘아이히만’의 유대인 학살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자인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비밀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이스라엘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검사: 피고인의 본명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 계획의 집행 책임자로서 유대인 학살을 지휘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제가 본 피고인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해 직업학교도 세우는 등 개인적으로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아이히만을 가리키며)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유대인 학살을 지휘하였습니까?

아이히만: 저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으며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검사: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아이히만: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하였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검사: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감히…

(나)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을 구속하는 외재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으로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을 들 수 있다.

사회명목론의 입장에서는 개인만이 참다운 실재이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는 단지 외부의 힘으로부터 개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단순 합의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명목론에서는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보며,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은 사회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에 있다고 본다. 이처럼 사회명목론은 개인을 중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반면 사회실재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단순히 개개인의 총합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한다. 사회실재론은 개별적인 개인의 존재보다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개인에 대한 사회의 영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식과 행동은 개인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에 의해 규제된다고 본다. 이처럼 사회실재론은 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를 하나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띤 생물 유기체로 보고 개인을 사회 전체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내지 기관으로 간주하는 사회 유기체설과 연관이 깊다.

<다음 장 계속>

(다)

개인과 집단을 비교해 볼 때, 집단은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도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어서 극단적인 이기심을 드러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인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하고 합리적인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개인의 이기적인 충동들이 합쳐져서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인적 이기심은 개별적으로는 점잖게 나타나지만,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에는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라)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이 서로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별개로 사회의 도덕성을 따로 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개인 윤리적** 관점 이외에 **사회 윤리적**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개인 윤리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양심이나 윤리의식 등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 실천 의지, 습관의 결여 등 개인적 측면에서 원인을 파악한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을 증진하는 대책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제도, 구조, 정책의 도덕성에 중점을 두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개인보다는 구조나 제도에서 먼저 찾고자 한다. 즉, 사회 윤리는 사회나 제도가 갖는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런데 인간 사회를 둘러싼 문제의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게 될 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개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도덕의 숭고한 규범들에 충실해야 할 경우가 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명백히 악한 방향으로 기울 때에는 그 집단을 벗어남으로써 자신들의 개인적 이상을 지켜야 한다.

<끝>

2015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 오전)

출제의도,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땅이 가지는 가치와 의의를 생각해 보고,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져야 할 도덕적 태도를 논제로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제했다.
- 본 문제의 취지는 제시문 (가)의 아버지와 아들의 땅에 대한 태도를 제시문 (다)의 브래들리의 가계의 경우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제시문 (라)의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백인들의 자연관을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는 땅에 대해 아들이 경제적 실리를 얻는 수단으로 보는 반면 아버지는 정신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기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백인들이 자연을 물질적인 가치로 여기는 반면 인디언 추장은 자연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생태적인 가치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브래들리 집안을 예로 들어 특정 지역에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관습에 순종하여 살아 온 구세대와 전 세계를 삶의 활동무대로 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도시민들의 삶을 대비시킨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의 아들과 아버지의 땅에 대한 태도를 논하는 논거가 된다. 제시문 (라)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각각 자연에 대하여 다르게 취하는 입장을 보여주는데, 제시문 (나)의 백인들의 자연관을 비판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 이 문제는 제시문 (다)의 논지를 파악하여 제시문 (가)의 아들과 아버지의 땅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이들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능력, 제시문 (라)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백인들과 인디언 추장의 자연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이들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출처

- 제시문 (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 (주)천재교육, 2013, 127-129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나):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 (주)천재교육, 2013, 49-52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다): 고등학교 『사회』, (주)천재교육, 2013, 127쪽, 178-179쪽에서 발췌 후 윤문.
고등학교 『한국지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9, 36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주)천재교육, 2013, 142-145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채점 가이드라인

* 기본 점수 50점,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 합계 100점

① (가)의 아버지와 아들의 태도를 대비하여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땅과 관련하여 아들이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와 아버지가 중시하는 정신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서술

- ②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가)의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태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제시문 (다)의 브래들리 집안의 경우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비되는 생활의 환경을 논거로 하여 제시문 (가)의 아버지와 아들이 땅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
- ③ (나)의 백인들이 자연에 대해 갖는 태도를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제시문 (나)의 백인들이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을 이용함을 서술
- ④ (라)의 논점을 활용하여 백인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적절하게 비판을 했을 경우 최대 10점
 - 제시문 (라)의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백인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함
- 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 ⑥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
- ⑦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
- 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

● 모범 답안

제시문 (가)에서 아들은 농지를 시골에 묵혀두는 것보다 병원을 확장하는데 투자함으로써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버지는 땅이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 온 터전으로서 사고팔 수 없는 정신적인 가치들을 가진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 땅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이들이 살아 온 시대적 환경에 기인한다. 아버지는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평생을 정착민으로서 활동 영역이 농촌에 고착되었기에 땅에 대해 거의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가치를 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통신 및 교통수단이 급속히 발전한 현대의 대도시

에 살며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아들은 땅을 상대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은 가치로 생각한다. 제시문 (나)의 백인들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연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연을 이용하려고 한다. 제시문 (라)의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백인들이 자연을 도구화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경시하는 태도는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에 어긋난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연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백인들이 자연에 대해 가졌던 인간 중심주의의 도덕적 불감증을 버리고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771자)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제했다.
- 본 문제의 취지는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과 검사의 입장을 제시문 (나)의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제시문 (다)의 논지를 아이히만의 입장과 관련지어서 요약, 서술하며, 제시문 (라)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개념과 논지를 근거로 아이히만의 행위를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는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인 아이히만과 검사의 진술 내용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개인과 사회의 구조와 관계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인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 집단의 이기심과 이기적 행동이 개인의 이기심보다 더 충동적이고 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제시문 (나)의 사회실재론과 관련되어 있다. 제시문 (라)는 사회의 도덕적 문제 해결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둘 다 필요하며, 갈등과 모순 상황에서 ‘사회 윤리’는 정의를, ‘개인 윤리’는 이타성을 추구해야 함을 보여준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과 검사의 입장을 파악하는 능력,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내용과 통합하여 서술하는 능력, 제시문 (라)의 논지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출처

- 제시문 (가):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2010, 69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나):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교학사, 2011, 68-69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1, 19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제시문 (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1, 18쪽에서 발췌 후 윤문.

● 채점 가이드라인

- * 기본 점수 50점,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 합계 100점
- ① (가)의 아이히만과 검사의 관점을 (나)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아이히만의 관점을 사회실재론으로 검사의 관점을 사회명목론으로 서술
 - ② (가)의 아이히만의 입장의 정당성을 (다)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다)의 내용을 사회실재론과 연결하여 아이히만의 관점의 정당성을 적절하게 서술
 - ③ (라)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간의 갈등 관계를 적절하게 요약해서 제시했을 경우 최대 10점
- 사회의 윤리적 문제의 해법에는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가 둘 다 고려되어야 하며, 아이히만의 행위는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의 갈등 관계에서 평가해야 함을 서술
 - ④ (라)의 논점을 활용하여 아이히만의 행위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했을 경우 최대 10점

- 사회의 요구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 개인 윤리에 근거하여 이타성이라는 개인 윤리의 이상을 추구해야 함을 서술

- 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 ⑥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
- ⑦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
- 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

● 모범 답안

제시문 (가)의 검사는 사회가 인간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며 인간만이 실재임을 주장하는 제시문 (나)의 사회명목론의 입장을 나타낸다. 이 관점은 사회 현상의 원인이 사회가 아닌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아이히만은 사회가 개개인의 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독립적이고 유기적인 실체이며, 개개인은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실재론의 입장을 취한다. 그의 입장은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제시문 (다)의 논지를 수용하는데, 이 관점은 사회가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려우며, 개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적 이기심으로 합쳐질 경우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에서 사회의 도덕적 문제가 개인의 양심이나 윤리 의식의 결여 등에 기인한다고 보는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의 도덕적 문제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서 찾는 사회 윤리적 관점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아이히만의 행위에 대한 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제시문 (라)에서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요구 간에 화합하기 힘든 모순과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사회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한편, 개인 윤리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인데, 사회의 요구가 정의롭지 못할 때 개인들은 이상적인 도덕적 가치인 이타성을 지켜야 마땅하다. 아이히만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요구에 대해 이타성을 지키지 못했다. (791자)